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lf-identity by Adolescents on Types of Career Decision-making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Cheol Heo(jcheo@kwu.ac.kr)

요약

청소년기는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직업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현명한 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미래확신성과 자기수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진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며, 능력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진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자아정체감 | 미래확신성 | 자기수용성 | 진로 의사결정 유형 |

Abstract

This paper searches for programs for creating increased employment in local society in important occupation sector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ulture and arts, housing and environmental service fields. As part of an improvement plan, while strengthening investment in education training infrastructure for the suppliers of social service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necessary. Also necessary are identifying model social enterprises that are based upon joint efforts for success of social enterprises and publicity efforts necessary.

■ keyword : | Social Services | Social Enterprises | Promoting Employment |

1. 서론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롯하여 존재의 가치, 삶의 목표와 의의를 찾게 된다. 자아정체감을 올바르게 확립한 청소년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의 존재가치와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자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인생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으로 매

사에 충동적이고 동요하기 쉽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청소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색해보고 어떤 일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아 상급학교나 직업의 선택만을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나아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개인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생애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정신을 함양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요구된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형성되는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식 사이에는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유형을 파악하여 이들 변인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이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단계에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자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정인 자아정체감 발달 정도와 청소년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자아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성취를 돕고 부모와 교사에게 청소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좀더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해야 할 발달과정중에 '자아정체감'이 있다. Erikson[1]에 의하면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차선[2]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은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대결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정체감은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내지는 동일성인 동시에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ussen 등[3] 또한 Waterman[4]은 자아정체감 개념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자아정체감의 7가지 측면들의 조합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인 정의로 제시하고 있다. ㉠ 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 인생의 목표, 가치, 신념을 정립시키기 위한 관여 ㉢ 관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의 존재 여부 ㉣ 정체감에 대한 대안 점들을 찾기 위한 범위에 대한 고려 ㉤ 자기수용의 정도 ㉥ 개인적인 독특성에 대한 감각 ㉦ 개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감 등이다.

이상과 같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때,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자신에 대한 독특하고, 동질적이며, 지속적인 지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Dignan[5]의 자아정체감 평정, Simmon[6]의 심리사회적 발달검사, Marcia[7]의 자아정체감 검사등이 이용되어 왔다. 특히, Marcia[7]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구성요인으로 자

신감과 독립심, 융통성, 성취성, 수용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봉연[8], 권순명[9], 조학래[10], 정종권[11], 이차선[12], 박아청[13]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차선[12]은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지각 등의 6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박아청[13]은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척도를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등의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3]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수용성과 미래확신성 등의 2가지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더 나아가 자신의 장래 할 일에 대한 계획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2. 진로 의사결정 유형

Harren[14]은 의사결정유형을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 유형, 또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15].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는 Dinklage[16]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고등학생들이 교육과 직업 및 기타 일상적인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절차를 인터뷰한 결과 고등학생들은 계획형, 직관형, 복종형, 숙명형, 충동형, 지연형, 고민형 그리고 무력형이라는 8가지의 진로 의사결정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8가지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계획형 유형이라고 하고, 직관형 유형은 어느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그 외의 유형들은 비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Arroba[17]는 진로의 사결정유형을 진로 의사결정 상황에 반응하는 독특한 개인의 접근상의 방법이라고 정의하며,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무사유형(No Thought), 동조형, 논리형, 감정형, 직관형, 주저형 등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결론지었다. Krumboltz와 그의 동료들[18]도 합리적, 충동적, 직관적, 의존적, 운명론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며, 대체로 의사결정 전략은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Harren[14]은 Dinklage[16]가 분류한 의사결정유형을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세가지로 재분류하였다[15]. Harren[19]은 진로와 관련지어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 진로 의사결정검사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합리적 유형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많은 연구들이 만족스럽고 확실한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구분되었지만, Harren[14]의 유형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임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직관적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20-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rren[14]이 제시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진로 의사결정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개인의 특징적인 의사결정 형태를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합리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관적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 하지만, 의존적 유형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며 타인의 권위나 기대, 인정에 이끌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의존적 유형을

만족스럽지 못한 유형으로 판단하여, 청소년들이 만족스럽고 확실한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3.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bbins와 Patton[27]은 자신의 목표에 있어 안정을 유지하고, 우울감과 자신감을 지닐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더 확신적이라고 했다. 즉, 목표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그 행동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간에는 높은 관련을 나타내는 까닭에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감과 성공감을 크게 나타낸다[28][29].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부재 및 그 낮은 상태에 빠져있는 개인일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비합리적이며 그 결정상태도 낮게 나타난다[30][31].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정체감이 낮고 부족할수록 진로결정력이 낮고 미결정의 특성을 보인다[14][32].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정능력의 연구에 있어 예언요인으로 시사되었다. 그리하여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확신적이며 반대로, 자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및 확신성 등의 낮은 정체감과 그 혼미 및 장애가 진로미결정자의 특성으로 나타났다[33][34]. 종합적으로 Munley[35]는 자아정체감을 높게 형성할 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더 잘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의 실행상태에 있어서는 더 확고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정채기[36]의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개념은 진로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유형이 합리적이며 그 결정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권영수[37]의 연구에서도 의사결정 유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자아개념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경애[22]는 자아개념과 진로 의사결정 간에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으므로 자아개념

이 높을수록 목적적인 진로탐색에 의한 합리적 진로결정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경주[38]는 자아개념의 요인들 중에서 능력자아와 정서적 자아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의미있게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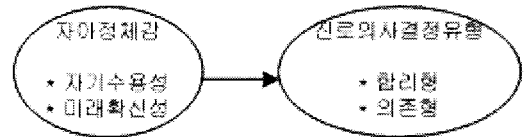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의 모형에 근거하여 회귀모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합리적진로 의사결정 유형}(y_1) = \beta + \beta_1x_1 + \beta_2x_2$$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text{의존적진로 의사결정 유형}(y_2) = \beta + \beta_1x_1 + \beta_2x_2$$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자기수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합리적진로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자기수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의존적진로 의사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미래확신성 정도가 높을수록 합리적진로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미래확신성 정도가 높을수록 의존적진로 의사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에 이용된 조사대상의 표본은 중학교 남녀 1~3학년, 고등학교 남녀 1~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설문조사는 2007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교의 협조를 구한 뒤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총 440부를 배부하여 43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 무응답 문항이 많은 설문지 44부를 제외한 392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측정도구

4.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측정에는 한국형 자아정체감척도[13]를 사용하여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2가지 하위척도는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등이다. 자기수용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말한다. 미래확신성은 자신의 장래직업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말한다. 두 개 영역에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응답점수는 9점부터 45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의미한다.

4.2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의사결정 유형 검사는 학생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하는 전략을 측정하는 것으로 Harren[14]이 개발한 진로 의사결정 검사 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 검사를 고향자[15]가 번역·수정 보완하여 원래의 예/아니오 형식을 4점 척도로 변경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2개의 하위영역만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직관적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21-27][39].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의 변화로부터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검증

[표 1]처럼 요인적재값이 0.6이상인 19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4개요인이 총분산의 65.191%를 설명하였다. 19개 항목들이 4개의 가설된 요인들로 명백하게 분리되었다. 이 결과는 4개의 개념들이 경험적으로 구별 가능한 구성요소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1]과 같이, 각 요인들의 Cronbach's Alpha(α)값이 모두 0.6이상 이어서 모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명 (Alpha)	요인 적재량	아이 겐값	분산 비율	누적분산 비율
제1요인 (미래확신성) $\alpha = 0.9343$.883 .867 .858 .851 .797	6.743	35.489	35.489
제2요인 (의존적유형) $\alpha = 0.8286$.747 .734 .732 .724 .709	2.244	11.810	47.299
제3요인 (합리적유형) $\alpha = 0.7955$.756 .743 .734 .722 .635	2.018	10.624	57.923
제4요인 (자기수용성) $\alpha = 0.8082$.788 .780 .760 .616	1.381	7.268	65.191

2. 연구가설의 검증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설검증 결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설	Beta	표준오차	t값	p값	채택 여부
자기수용성-합리적	.197	.040,040	3.691	.000	채택
자기수용성-의존적	-.374	.032	-7.553	.000	채택
미래확신성-합리적	.232	.032	4.361	.000	채택
미래확신성-의존적	-.201	.032	-4.060	.000	채택

** p<0.05

첫째, 자기수용성은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197, 표준오차는 0.040, 유의수준 $p < 0.05$ 에서 t값이 3.691이며,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수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자기수용성은 진로의사결정의 의존성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374, 표준오차는 0.040, 유의수준 $p < 0.05$ 에서 t값이 -7.553이며,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수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의 의존성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2>도 채택되었다.

셋째, 미래확신성은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32, 표준오차는 0.031, 유의수준 $p < 0.05$ 에서 t값이 4.361이며,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확신성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3>도 채택되었다.

넷째, 미래확신성은 진로의사결정의 의존성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01, 표준오차는 0.032, 유의수준 $p < 0.05$ 에서 t값이 -4.060이며,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확신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의

사결정의 의존성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4>도 채택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확신성은 합리적인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도 합리적인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미래확신성은 의존적인사결정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도 의존적인사결정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이경애[22]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간에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으므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목적적인 진로탐색에 의한 합리적 진로결정을 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유형이 의존적이라고 보고한 송양호[40]의 연구, 김지순[21]의 연구와 일치한다. Harren[14]도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설명하면서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변인으로 의사결정자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들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는 잘 분화되고 통합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유형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며, 자율적이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나타내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 형성이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미래확신성과 자기수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경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신을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며, 능력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진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중에 하나로 인생의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기에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을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안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문헌

- [1]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W Norton & Co, 1968.
- [2] 이차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3] P. H. Mussen, J. J. Conger, and J.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4th ed.)*. New York : Harper & Row, 1974.
- [4] A. S. Waterman,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 An extention of theory and review of reserc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8, No.3, pp.341-358, 1982.
- [5] M. H. Dignan,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 No.5, pp.476-483, 1965.
- [6] D. Simmon, "Development of an objective measure of identity achievement status,"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lity Assessment*, Vol.34, pp.241-244, 1970.
- [7] J. E. Marcia,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d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159-187, 1980.
- [8] 서봉연,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5.
- [9] 권순명,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통제귀인 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10] 조학래,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11] 정종권,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12] 이차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13] 박아청,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3호, p.384, 2003.
- [14] A. V. Harren,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pp.119-133, 1979.
- [15]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16] L. B. Dinklage, *Di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68.
- [17] T. Arroba, "Styles of Decision-Making and Their Us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5, No.2, pp.149-158, 1977.
- [18] J. D. Krumboltz and D. S. Scherba, "Effect of training in rational decision making on the quality of simulated career deci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9, No.6, pp.618-625, 1982.
- [19] A. V. Harren,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 making*. L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4.
- [20] 김지순,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과
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1] 이경애, *가정의 심리적 환경·자아존중감·진로의
사결정유형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 [22] 안무정, *중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3] 이은아,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의사결정 성향이
진로미결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4] 최선정, *고등학생의 내·외 통제성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5] 맹영임,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
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26] 이소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및 진로의사결
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7] S. Robbins and M. Patton, "Self-Psychology
and Career development : Construction of the
superiority and goal instabil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2, No.2,
pp.220-231, 1985.
- [28] T. M. Skovholt and J. I. Morgan, "Career
development : An outline of issues for me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Vol.29,
pp.231-237, 1981.
- [29] D. V. Tiedeman, " Decision and Vocational
Development : A Paradigm and Its
Implication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September, 1961.
- [30] J. L. Holland, and J. E. Holland, "Vocational
indecision :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1977.
- [31] L. K. Jones and M. F. Chenery,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1980.
- [32] L. Larkin, "Identity and fear of suc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pp.38-45,
1987.
- [33] V. N. Gordon, "The undecided student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1981.
- [34] K. M. Taylor, "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 Correlates and
Moder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pp.318-329, 1982.
- [35] P. H. Munley, "Erikson's Theory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15, pp.260-272, 1977.
- [36] 정채기,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1992.
- [37] 권영수,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유
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4.
- [38] 이경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가정환경
특성,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9] 강무섭, 박영숙, *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분석*, 한
국교육개발원, 1984.
- [40] 송양호,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아개
념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
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저 자 소개

허 정 철(Jeong-Cheol Heo)

정회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분야